

한국 수의학 교육연한 연장에 관한 특집 I

4. 일본의 수의학교육

이 은 송

오늘날 고도의 경제성장은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생활형태를 바꾸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의식주(특히 식생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현재에는 어떻게 하면 더욱 살기 좋은 환경에서 더욱 안전한 음식을 먹으며 더욱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관심분야가 변화되고 있다. 즉, 식품의 안정성 확보, 반려동물수의 증가에 따른 진료수준의 향상, 의약품 개발 등 생물의학분야의 진보 및 무역자유화에 따른 동물검역, 잔류물질검사 등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수의학분야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며 가장 본질적인 대응책으로서 대학 및 대학원의 수의학교육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10년전 우리와 유사한 수의학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던 일본의 6년제교육 이후의 수의학교육 현황 및 특히 일본내의 현재 수의학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일본의 수의학교육 현황

일본이 수의학교육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한 것은 1978년부터 석사과정을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한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쳐 1984년 처음으로 6년제로서의 신입생을 모집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

어 올해로서 10년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교육연 한의 2년 연장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4년제 당시에는 접할 수 없었던 많은 다양한 수의학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교육을 가능하게 하였다. 참고로 일본 동경대학, 북해도대학 및 오비히로 축산대학 수의학과(부)의 전문교과과정을 소개하면 표 1-7과 같다.

학점단위는 매주 1시간씩 학기당 15시간 강의를 1단위로 하고, 실습은 매주 3시간, 1학기당 45시간을 1단위로 하며, 연습은 매주 2시간(북해도대학은 매주 1시간), 학기 당 30시간을 1단위로 하고 있다. 이 단위는 우리나라의 학점에 해당된다.

수의학과는 1-2학년이 교양과정으로서 인문, 사회, 자연과학에 관한 일반과목을 이수하게 되며, 대학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2-3학년부턴 본격적인 수의학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일본 수의학 교육에는 전수교육이라는 특징적인 교육제도가 존재하는데 수의학과 4학년이 되면 자신의 취향 및 성적 등을 참작하여 각 전공의 강좌에 소속하게 된다. 전수교육과정에서는 특정한 연구테마를 부여받아 2-3년간 졸업논문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이렇게 해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학술잡지에 발표함으로써 학부에서부터 연구활동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연구자로서의 자질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6년간의 학부졸업후 사회에 진출하여 바로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

※ 일본 오비히로대학

들을 마련하였으며, 항상 연구하는 수의사를 양성, 배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의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137-142단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위한 실험을 수행,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수업시간은 전수교육을 포함하여 약 5000시간이상에 달한다.

2. 6년제 수의학교육의 장점 및 단점

일본에서는 수의학 교육연한을 6년으로 연장한 후 10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아직 수의학 교육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의학교육제도의 연장이 이루어질 당시는 일본 문부성(교육부)의 예산이 매우 강하게 억제되었던 시기이며 입학정원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교원의 증가 및 시설확충은 문부성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문제가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수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의 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재학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학생수가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4년제 교육당시와 다름없는 인원, 설비로 6년제 교육을 감당하게된 현실은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담당과목의 증가로 수의학 학부교육의 밀도 및 질이 전보다 오히려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몇몇 수의학과 현직교수(동경대학, 오비히로축산대학)의 견해 및 전국 수의학관계대학 대표자협의회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 수의학교육의 장점 및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점

① 의학, 치의학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의학과 졸업생의 사회적 지위(특히 공무원)가 향상되었다.

② 4년제 교육당시보다 학부교육에서 담당하는 과목수가 증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분자생물학 등의 생물학 분야에 대한 교육이 강화됨으로써 졸업후 바로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③ 6년제 교육실시 이후 연구분야가 활성화됨으로

써 학술논문 발표가 증가되었으며, 연구의 질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다.

④ 반려동물 및 산업동물에 대한 임상진료의 질이 향상되어 수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였으며, 산업동물의 경우 치료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경제성이 향상되었다.

2) 문제점

① 교육기간은 2년이 증가하였지만 그에 따른 교원수 및 시설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임상수의학의 경우 극히 소수의 교수가 내과, 외과 및 산과 등 전체 임상을 담당해야 함으로써 6년제 교육이후에도 임상수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

② 6년제 교육이후 5-6학년과정을 4년제 교육당시의 석사과정에 해당되는 과정으로 인식함으로써 연구를 주제로 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 이는 4년제 교육당시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수의학교육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임상교육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실학경시의 측면으로 흐르고 있다.

③ 사회 각분야 특히 공중위생분야 및 산업동물임상분야에 대한 수의사의 수급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

3) 대책

전국 수의학관계대학 대표자협의회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수의학과(부) 교육의 문제점은 크게 공중위생분야 및 산업동물임상분야의 인재부족 및 생물의학분야에 대한 교육강화의 두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교육설비의 확충, 교원수의 증가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상교육 강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고학년(5-6학년)에 진급하게 되면 희망전문분야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임상분야 및 비임상분야를 분리하여 개별적인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졸업후 임상 진료를 희망하는 학생을 별도로 모집하는 추천 입학제도, 의학분야와 같이 졸업후 2년 정도의 연수의 제도의 도입 등도 임상수의사의 수를 증가시키고 임상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3. 연합대학원의 현황, 장점 및 문제점

일본내에는 총 16개 대학에 수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독자적인 박사과정이 없는 대학의 수의학과 졸업생이 박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에 입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1990년 독자적인 박사과정이 없었던 몇개의 국공립대학이 연합하여 박사과정을 설치한 연합대학원이라는 특수한 교육체계를 만들게 되었다.

일본내에는 두개의 연합대학원이 있는데, 기후대학, 동경농공대학, 이와테대학 및 오비히로축산대

학으로 구성된 기후대학 연합대학원과 야마구찌대학, 돗토리대학, 가고시마대학 및 미야자키대학으로 구성된 야마구찌대학 연합대학원이 그것이다. 연합대학원의 설치는 학술연구활동을 자극함으로써 학회발표, 학술교류 및 연구분위기 조성 등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각 구성대학간의 교수 및 학생교류, 공동세미나 및 특별강의 등을 통한 관련 및 유사연구분야간의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일본의 전반적인 수의학교육에 있어서 연구분야가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견해 이외에 몇가지 문제점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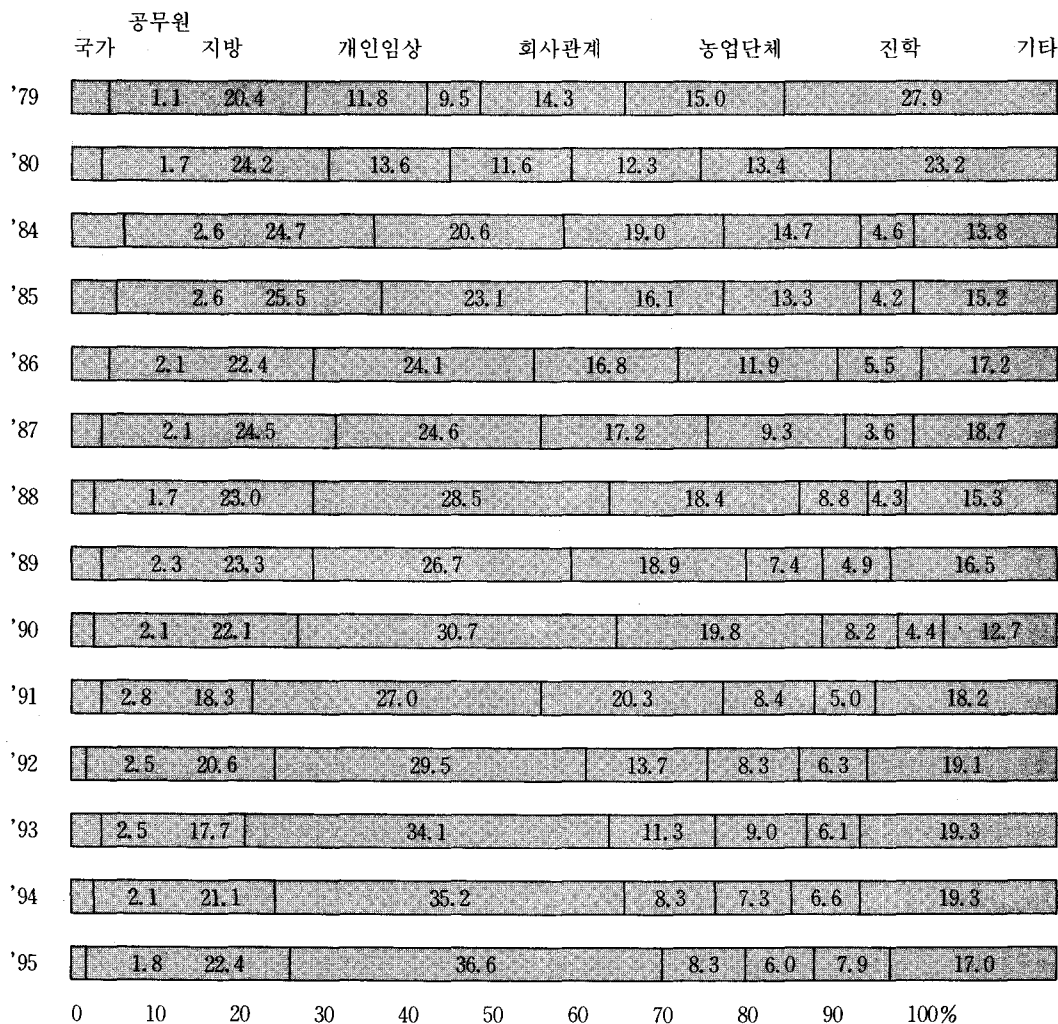


그림 1. 6년제 교육이후의 일본 수의학과 졸업생의 취직동향.

되고 있다. 첫째로, 박사과정 학생의 증가에 따른 연구시설의 보충 및 연구비의 지원이 불충분하여 내실이 없는 형식상의 고학력화와, 둘째로, 구성대학이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학술회의, 공동강의 등을 실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합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면 여름방학이나 학기중에 각 구성대학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한 대학에 모여 일정기간동안의 집중강의 또는 공통세미나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대학원의 설치는 각 구성대학들이 대학이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연구활동을 전개해 감과 동시에 타 대학과의 공동연구, 학술교류를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수의학과의 연간졸업생수 및 취직동향

일본 전국의 수의학과를 졸업하는 연간 졸업생수는 1000-1100명으로 이들중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인원은 900-1000명정도이다. 이들은 졸업 및 수의사 면허취득 후 사회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수의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 1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자료를 근거로 수의학과(부) 졸업생들의 취직동향을 연별로 정리한 것이다. 대학졸업생들의 취직분야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게 되는데 6년제 수의학부 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처음 배출된 1984년의 경우 이전과 비교해서 '개인진료' 및 '회사관계'의 취직이 증가한 반면 '그외' 분야가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 후에는 '공무원' 및 '개인진료'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개인진료의 경우 정식 6년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배출된 1990년에는 30%를 넘게 되었으며, 그후로도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는 36.6%가 개인진료를 선택하고 있

다. 한편 '회사관계'에의 취직은 1992년 이후 경제호황이 무너지면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 여파로 공무원과 개인진료가 증가하게 되었다. 일본 수의사들이 개인진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소동물(반려동물)의 진료수준 향상으로 전문수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조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며, 주말을 쉴 수 있다는 점 등이라고 한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가 1991년 조사, 보고한 "수의업의 장래전망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반적인 수의관련분야에서 수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래의 수의사수에 대한 전망에 관해서도 농림수산분야가 50%, 공제조합 등 농업단체에서는 10-20%의 수의사의 증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공중위생분야에서 10-30%, 생물의학(바이오테디칼)분야에서 40-50%의 수의사의 증가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수의사의 수급에 관한 대책으로서는 전국 수의학과 졸업생수의 증가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수의사의 수급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복지, 동물애호 및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의사의 필요성이 증가될 것이며, 특히 당면한 문제로서는 농수축산물 개방에 따른 검역 및 잔류물질 검사 등 수의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제도 및 수의사에 적절한 수급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제한된 자료이나마 수의관계 보고서, 앙케이트 조사자료 및 몇몇 현직교수의 견해를 바탕으로 일본 수의학교육 현황 및 6년제 교육이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일본이 현재 안고 있는 수의학교육 및 수의관련분야의 문제점은 6년제 수의학교육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